<h1>나 혼자만 레벨업-68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o71723d29cc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8화</p>  
<p>전대미문의 사건!</p>  
<p>던전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 나오다!</p>  
<p>헌터관리국에 비상이 걸렸다.</p>  
<p>소식을 들은 부국장이 직접 취조실을 찾았다.</p>  
<p>매직미러의 안쪽.</p>  
<p>얌전히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동양인 남자가 보였다.</p>  
<p>"저 남자인가?"</p>  
<p>"그렇습니다."</p>  
<p>"겉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데?"</p>  
<p>"그렇습니다."</p>  
<p>말 그대로였다.</p>  
<p>덥수룩한 머리와 수염만 정리하면 동양의 흔한 중년 남성으로 보일 것 같은 외모였다.</p>  
<p>"신원은 알아냈나?"</p>  
<p>"자신을 한국의 헌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"</p>  
<p>"한국?"</p>  
<p>"그렇습니다."</p>  
<p>"한국의 헌터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던전에서 나왔다는 건가?"</p>  
<p>"10년 전에 던전을 갇힌 채로 게이트가 닫혔는데."</p>  
<p>"눈을 뜨고 보니 미국이었다?"</p>  
<p>"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"</p>  
<p>부국장은 이마를 짚었다.</p>  
<p>이걸 국장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?</p>  
<p>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왔다.</p>  
<p>"그런데 자네들은 여기서 뭐 해? 들어가면 뭐라도 캐오지 않고."</p>  
<p>어쩌면 국장이 아니라 그 윗선, 아니 그 위의 윗선까지 보고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.</p>  
<p>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담당 부장의 생각은 달랐다.</p>  
<p>"저희는 저 남자가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마수일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"</p>  
<p>"그래서?"</p>  
<p>"취조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내면 워싱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"</p>  
<p>일리 있는 말이었다.</p>  
<p>A급이 다수 섞인 공격대도 꼼짝없이 당했다고 하지 않았는가.</p>  
<p>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.</p>  
<p>"조사할 때 실력 있는 헌터를 대동해야겠군."</p>  
<p>기왕이면 S급으로.</p>  
<p>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가까운 곳에 한국어가 가능한 S급 헌터가 한 분 계십니다."</p>  
<p>부국장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명색이 헌터관리국 부국장이다. 미국에 거주하는 S급 헌터의 명단쯤은 훤히 꿰고 있었다.</p>  
<p>"미스터 황! 그가 오고 있나?"</p>  
<p>"그렇습니다."</p>  
<p>스케빈저 길드의 메인헌터 황동수.</p>  
<p>그를 귀화시키기 위해 헌터관리국 전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.</p>  
<p>'그라면...'</p>  
<p>어떤 문제가 생겨도 끄떡없다.</p>  
<p>부국장은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아참."</p>  
<p>뒤늦게 떠오른 질문.</p>  
<p>위에 보고하려면 대상의 이름 정도는 외워 둬야 했다.</p>  
<p>"저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?"</p>  
<p>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다.</p>  
<p>부장은 부하들이 올린 보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말했다.</p>  
<p>"한국의 헌터 성일환이라고 했습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황동수는 자비심이 없었다.</p>  
<p>특히 마수들에게는 더.</p>  
<p>던전 브레이크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형 밑에서 자랐다. 때문에 S급 각성자가 됐을 땐 하늘이 주실 기회로 여겼다.</p>  
<p>'원 없이 마수들을 찢어 죽일 기회!'</p>  
<p>그래서인지 취조실에 들어서는 황동수의 시선은 싸늘했다.</p>  
<p>던전에서 나온 남자.</p>  
<p>심지어 마력 파장까지 마수들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.</p>  
<p>'마수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면...'</p>  
<p>이 자리에서 숨통을 끊는다.</p>  
<p>그럴 생각으로 헌터관리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.</p>  
<p>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다.</p>  
<p>'...'</p>  
<p>'...'</p>  
<p>시선의 교환.</p>  
<p>황동수는 남자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의자를 빼내 앉으며 입을 열었다.</p>  
<p>"나한테 협조적으로 구는 게 좋을 거야. 내 한마디에 당신이 인간이냐 마수냐가 결정되는 거니까."</p>  
<p>"그러지."</p>  
<p>본격적인 취조에 앞서 황동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떠올렸다.</p>  
<p>던전에서 죽었다는 형.</p>  
<p>황동석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걸까?</p>  
<p>그걸 먼저 알고 싶었다.</p>  
<p>"다른 헌터들도 당신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?"</p>  
<p>남자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순간 황동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"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?"</p>  
<p>"나는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."</p>  
<p>"이유? 무슨 이유?"</p>  
<p>"그전에 나도 하나 묻지."</p>  
<p>"...질문은 내가 한다."</p>  
<p>황동석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그러나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게이트, 마수, 던전 브레이크. 그것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?"</p>  
<p>"..."</p>  
<p>시시한 질문이었다면 황동수는 힘으로라도 남자의 입을 틀어막았을 거다.</p>  
<p>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.</p>  
<p>10년 전 처음 게이트가 생성되고, 각성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이들이 도전했으나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.</p>  
<p>어쩌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.</p>  
<p>"부국장님..."</p>  
<p>"쉿."</p>  
<p>매직미러 바깥에서 취조를 지켜보던 헌터관리국 직원들도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홛동수가 물었다.</p>  
<p>"너는 알고 있다는 건가?"</p>  
<p>"던전, 게이트, 마수... 그런 건 진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. 그리고 그 진짜들 중에서도 최악의 재앙이 될 힘이 얼마 전에 눈을 떴지."</p>  
<p>"그럼 네가 온 목적이란 건?"</p>  
<p>"재앙을 막기 위해서."</p>  
<p>"그 최악의 재앙이란 건 뭐지?"</p>  
<p>"...그건 말할 수 없군."</p>  
<p>황동수가 피식 웃었다.</p>  
<p>"재앙을 막기 위해 왔다는 인간이 그 재앙이 뭔지 밝힐 수가 없다? 그게 뭔지는 몰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낫지 않나?"</p>  
<p>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"숫자는 그 힘 앞에서 무력하다. 어설픈 이들이 뭉쳐 봐야 먹히고 이용당할 뿐이니까."</p>  
<p>"그래서 당신만이 막을 수 있다?"</p>  
<p>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황동수가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.</p>  
<p>'미쳐도 단단히 미쳤군.'</p>  
<p>던전 안에서 10년을 갇혀 있었다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다.</p>  
<p>아니면 마수가 인간을 흉내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머리가 어떻게 회까닥했다던가.</p>  
<p>그래서 적당히 맞장구쳐 주었다.</p>  
<p>"실력에 어지간히 자신이 있나 보군."</p>  
<p>"실력 외의 요건도 있다고 해 두지."</p>  
<p>"뭐...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."</p>  
<p>정신이 나간 남자에게서 무슨 정보를 얻어 내겠는가?</p>  
<p>황동수는 질문을 그만뒀다.</p>  
<p>대신 헌터관리국에 부탁받은 대로 남자의 신원 조회를 하기 위해 파일 케이스를 열었다.</p>  
<p>"이름은 성일환..."</p>  
<p>사진은 확실히 일치했다.</p>  
<p>'하지만 10년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지난 것 같군.'</p>  
<p>하지만 황동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.</p>  
<p>상급의 헌터는 노화도 비켜 나간다고 하니까.</p>  
<p>"헌터였을 때의 이력이 화려하군. 요즘 같았으면 돈 좀 만졌겠는데?"</p>  
<p>성일환은 대답하지 않았다.</p>  
<p>당시는 헌터 체계가 잡혀 있지 않던 시절.</p>  
<p>헌터의 등급조차 없던 시기였다.</p>  
<p>황동수는 문서를 읽어 나갔다.</p>  
<p>"배우자는 박경혜. 자녀가 두 명. 아들은..."</p>  
<p>담담히 자녀들의 프로필을 훑어보던 황동수의 눈이 잠깐 커졌다.</p>  
<p>'성진우?'</p>  
<p>하지만 아주 잠깐이었다.</p>  
<p>황동수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할 말을 이어 갔다.</p>  
<p>"...성진우, 딸 이름은?"</p>  
<p>"성진아."</p>  
<p>"오케이. 다음."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잠깐."</p>  
<p>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했던 황동수를 성일환이 저지했다.</p>  
<p>황동수가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성일환의 시선은 황동수의 시선만큼이나 싸늘해져 있었다.</p>  
<p>"어째서 내 아들을 언급할 때 살의가 느껴졌던 거지?"</p>  
<p>"..."</p>  
<p>툭.</p>  
<p>황동수가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다.</p>  
<p>그리고 바깥과 연결된 마이크를 껐다.</p>  
<p>"질문은 내가 한다고 했을 텐데."</p>  
<p>"답을 들어야겠다."</p>  
<p>"대답하지 않겠다면?"</p>  
<p>"힘으로라도 말하게 만들어야겠지."</p>  
<p>성일환의 두 눈이 번들거렸다.</p>  
<p>그는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어보였다.</p>  
<p>그러자 황동수가 피식 웃었다.</p>  
<p>"알겠다. 넌 마수로군."</p>  
<p>어디서 마수 따위가 헌터에게 협박을?</p>  
<p>자신을 향한 강한 적의.</p>  
<p>마수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했다.</p>  
<p>'아니, 어쩌면 하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모르지.'</p>  
<p>그렇게 멋대로 결론을 내린 황동수가 방금 껐던 마이크를 다시 켰다.</p>  
<p>삑.</p>  
<p>"부국장님, 이 남자는 마수입니다. 공격이 시작될 것 같으니 어서 대피들 하십시오."</p>  
<p>-뭐? 자, 잠깐!</p>  
<p>삑.</p>  
<p>매직미러 너머에서 허둥대던 기척들이 순식간에 밖으로 빠져나갔다.</p>  
<p>곧 건물에 사이렌이 울렸다.</p>  
<p>황동수의 두 손이 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.</p>  
<p>"좀 있다 한국에 들릴 예정이다."</p>  
<p>준비를 끝낸 황동수가 성일환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네 아들한테 아버지의 유언이 뭐였다고 전해 줄까?"</p>  
<p>\*\*\*</p>  
<p>TV에선 계속 레드 게이트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진우는 뒷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일이 시끄럽게 됐구만.'</p>  
<p>그래도 전혀 곤란하다거나 하지는 않았다.</p>  
<p>그냥 좀 미묘한 기분?</p>  
<p>자신이 없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생경했다.</p>  
<p>정체가 들키면?</p>  
<p>그래도 상관없었다.</p>  
<p>'어차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렸다.'</p>  
<p>처음 힘을 숨기고자 마음먹었던 이유는 혹시나 누군가에게 휘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은 어떤가.</p>  
<p>백윤호.</p>  
<p>백호 길드의 마스터이자 S급 헌터인 백윤호가 붙잡는데도 손을 뿌리칠 수 있는 수준이 됐다.</p>  
<p>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.</p>  
<p>'눈만 마주쳤어도 오금이 저렸겠지.'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. 이럴 때 회상을 안주 삼아 취기에 몸을 맡겨야 하는데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해로운 성분이 감지되었습니다.]</p>  
<p>['버프: 해독'의 효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.]</p>  
<p>[3, 2, 1...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아쉽게도 거기까진 허락되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씁쓸히 웃었다.</p>  
<p>하지만 술잔을 내려놓고 난 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.</p>  
<p>'그래도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어.'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이름: 성진우]</p>  
<p>[레벨: 61]</p>  
<p>[직업: 그림자 군주]</p>  
<p>[칭호: 역경을 이겨 낸 자 (외 1)]</p>  
<p>[HP: 13,001]</p>  
<p>[MP: 1,677]</p>  
<p>[피로도: 0]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42 체력: 101 민첩: 121 지능: 89 감각: 103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46%</p>  
<p>레벨 61.</p>  
<p>일일 퀘스트에서 얻은 포인트를 전부 투자한 덕분에 지능도 이제 100에 가까워졌다.</p>  
<p>'그래도 갈 길이 멀지만...'</p>  
<p>아직 올라갈 수 있었다.</p>  
<p>좀 더 높은 곳으로.</p>  
<p>어쩌면 아무도 닿지 못할 곳으로.</p>  
<p>그 사실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.</p>  
<p>시작은 악마성부터.</p>  
<p>'분명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라고 했겠다.'</p>  
<p>처음 축복받은 랜덤 박스를 얻었을 때를 떠올렸다.</p>  
<p>[축복받은 랜덤 박스]</p>  
<p>'플레이어'에게 원하는 아이템을 제공합니다.</p>  
<p>거기서 악마성 열쇠가 나왔다.</p>  
<p>높은 등급의 몬스터, 그리고 화끈한 보상.</p>  
<p>두 가지를 이미 확인하고 나왔다.</p>  
<p>위층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터.</p>  
<p>이제 거둬들일 때였다.</p>  
<p>아예 안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물 작정이었다.</p>  
<p>진우의 걱정은 하나.</p>  
<p>'들어가면 연락이 안 될 텐데...'</p>  
<p>동생에겐 뭐라고 말해 놓는다?</p>  
<p>집에 가는 동안 좋은 핑곗거리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툭툭.</p>  
<p>"진호야."</p>  
<p>툭툭.</p>  
<p>"유진호."</p>  
<p>"음냐."</p>  
<p>흔들어도 보고 살짝 때려도 봤지만 유진호는 인사불성이었다.</p>  
<p>이걸 어쩐다?</p>  
<p>'내일 협회로 가서 필기시험 봐야 한다던 놈이...'</p>  
<p>시험은 시험이고, 일단은 집에 돌려보내는 게 급선무였다.</p>  
<p>진우는 유진호의 폰을 들었다.</p>  
<p>"유명한 회장이나 유진성은 당연히 제외고."</p>  
<p>누구를 불러내서 데리고 가게 만들어야 유진호에게 피해가 없을까?</p>  
<p>고민하던 진우가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.</p>  
<p>'유수현?'</p>  
<p>아버지나 형과는 다르게 유독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였다.</p>  
<p>이름만 보면 여자인데...</p>  
<p>그녀를 부를까 잠깐 고민했던 진우가 폰을 내려놓았다.</p>  
<p>'혹시.'</p>  
<p>혹시나 싶어서 확인한 상점.</p>  
<p>역시나 찾던 물건이 있었다.</p>  
<p>찾았다!</p>  
<p>[아이템: 상태 회복 포션]</p>  
<p>입수 난이도: E</p>  
<p>종류: 소모품</p>  
<p>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물약입니다. 마시면 이상 상태가 회복됩니다.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.</p>  
<p>구매를 확정하자 테이블에 노란색 약병이 생겼다.</p>  
<p>힐링 포션의 붉은색이나 마나 포션의 푸른색과는 대조되는 밝은 색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주변을 살펴본 뒤 재빨리 유진호의 고개를 젖혀 상태 회복 물약을 입에 흘려 넣었다.</p>  
<p>순간.</p>  
<p>유진호가 눈을 번쩍 떴다.</p>  
<p>"형님?"</p>  
<p>"정신이 드냐?"</p>  
<p>젖혀진 고개.</p>  
<p>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님.</p>  
<p>"형님,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?"</p>  
<p>"..."</p>  
<p>마땅히 설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.</p>  
<p>이럴 땐 모른 척이 최고다.</p>  
<p>"가자."</p>  
<p>"네, 형님!"</p>  
<p>벌떡 일어난 유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어라? 몸이 왜 이렇게 개운하지?'</p>  
<p>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던 유진호가 상쾌한 얼굴로 진우를 쫓아 나갔다.</p>  
<p>그 뒤로 뉴스가 이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[다음 뉴스입니다. 얼마 전 미국 헌터관리국 본부 건물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 대해 여전히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...]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